

협회, 한국산업기술재단과 업무협약 체결



▲ 협회와 산업기술재단의 업무협약식

도모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회와 재단의 협약내용은 양 기관 수행사업의 홍보 및 기술정보 교환, 양 기관 보유시설, 자료 등에 대한 상호 지원 및 협력, 공동 사업 프로젝트 발굴 및 추진, 양 기관 회원사를 위한 정보교환 및 각종 산업기술정보 서비스 제공, 국제기술협력사업 다각화를 위한 휴먼네트워크 및 비즈니스 채널 공동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다.

협회 오형근 전무는 협약체결 배경에 대해 “벤처기업의 살 길은 글로벌화에 있다. 해외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각종 기술 및 개발 정보와 풍부한 네트워크가 필수다. 양 기관은 기업들의 해외진출 사업 추진에 적극적인 만큼 협력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 간 고급 기술정보 교환 및 제공, 해외진출사업 협력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어 각 회원들에 대한 서비스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협회와 재단은 이번 협약에 대한 후속조치가 가까운 시일 내에 공동 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실무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사진

전북지회 간담회 개최

협회는 지난 달 27일 지방벤처 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전북지회 기업인들과 함께 발전방향과 협력체계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라북도 강현욱 도지사과 전주시 김완주 시장, 전라북도 경제통상제통상 주종권 국장, 중소기업진흥공단 조정근 전북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 주제는 ‘벤처기업협회와 전북 벤처기업의 발전 방향’, ‘벤처기업협회·지역벤처기업협회·유관기관간의 협력 관계 모색’, ‘대기업과 벤처기업간, 전통문화산업과 벤처기업간의 협력체제 구축 방안’ 등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벤처기업들이 정부와 유관기관들에 요구하는 사항과 협회에 요구하는 사항들을 함께 이야기하기도 했다.

먼저, 정부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비롯한 피상적인 지원을 극복하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벤처기업 활성화 방안 제도 마련, 소단위 분야별로 전문가 확보, 사업화 방안 제도 마련, 해외와 국내 수요기업 간의 연계 지원 등이 거론됐다.

또, 전북 유관기관에 대해서는 벤처기업 특성 평가 및 수요기업 연계 지원, 지역특화산업과 벤처기업의 연계, 전국규모의 사업화 연계지원, 수출지원, 전문가 육성에 필요한 교육 및 양성기관 설립 등에 관한 요구 사항 등이 나왔다.

한편, 협회에 요구하는 사항으로는 사업자금 지원, 벤처기업으로 인증받게 되면 얻는 혜택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등에 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이번 간담회는 벤처기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심층 토론을 가짐으로써 지방 벤처기업들이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의견을 수렴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됐다.



▲ 정웅기 전북지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